
부산 광포전설과 로컬리티

권도경 / 대전대학교 교양학부

目 次

- | | |
|------------------------|------------------|
| I. 문제설정의 방향 | 3. 해양방어기지로서의 역사성 |
| II. 부산 광포전설의 존재양상 | 4. 지형·지리적 특수성 |
| 1. 아기장수 전설 | 5. 경남 지역과의 광역문화성 |
| 2. 장자뭇 전설 | IV. 나오는 말 |
| 3. 산이동 전설 | 참고문헌 |
| 4. 오누이 힘내기 전설 | 국문초록 |
| III. 부산 광포전설에 나타난 로컬리티 | Abstract |
| 1. 해안도서지역 특유의 여성성 | |
| 2. 민중적 힘에 대한 자부심 | |

I. 문제설정의 방향

부산은 최초의 직할광역시로 한국사에서 서울에 이어 제일 빨리 도시화·산업화가 진행된 지역이다. 그러면서도 한반도 남동부 끝자락에 위치한 지리적 변두리성과 최대의 항만무역으로 벌어들인 세수에 대한 자율적 재량권을 부여받지 못하고 수도 서울에 종속되어 있다는 경제적 박탈감, 한국사의 굵직한 위기사항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중앙 정치 무대에 해당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목소리를 관철시키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다는 정치적 소외감, 전국 규모의 행정·산업·도농복합·혁신 도

시 등의 대단위 개발 계획이 수립·시행되는 가운데 정작 해당 지역의 노후된 산업·도시·문화 시설의 재개발은 지지부진하여 타 지역의 발 빠른 개발 과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쳐져 있다는 낙후성 등이 대한민국 제2의 도시라는 부산의 화려한 수식어 이면에 숨겨져 있는 현실이다.

전통문화의 해체와 현대화가 가장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중심으로부터 그 어느 여타의 도시 보다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여전히 농업·어업·수산 지역이 공존하고 있는 부산의 면면은 현재 부산 지역에 전승되고 있는 전통문화가 이러한 부산의 지역사 및 현주소를 어떻게 담아내고 있는가 하는 문제의식을 자연스럽게 불러일으킨다. 부산 지역 전통문화의 현 전승양상 및 특징이 부산의 로컬리티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에 대한 고찰이 부산의 어제 및 현재에 관한 규명이라면, 이러한 부산 전통문화에 나타난 부산의 로컬리티를 어떻게 새로운 부산 문화콘텐츠로 재창작해 낼 수 있는가 하는 과제는 부산의 내일에 대한 문제의식이 될 것이다. 기실, 부산은 부산국제영화제를 국제적으로 성공시킴으로써 전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한류 문화콘텐츠의 중요한 핵심축의 하나인 한국영화 붐을 이끈 주역이다. 부산이 한국 전역에서 생산된 문화콘텐츠를 전세계에 소개하는 마켓의 역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부산 고유의 지역문화에 바탕한 문화콘텐츠를 생산하기 위해서도 부산 전통문화에 나타난 부산의 로컬리티를 규명하는 작업은 중요한 선결과제가 된다.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삼은 것은 부산의 전통문화 중에서도 전국적으로 그 하위양식적 유형이 공히 고르게 분포하는 광포전설(廣布傳説)이다. 부산 지역에 전승되는 광포전설의 전승적 특징과 타 지역과의 차이를 통해 부산 지역만의 로컬리티를 추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¹⁾

II. 부산 광포전설의 존재양상

부산 지역 광포전설의 하위유형으로는 아기장수 전설, 장자못 전설, 산이동 전설, 오누이 힘내기 전설 등이 확인된다.

1. 아기장수 전설

아기장수가 태어나 비범한 능력을 보이자 부모가 맷돌로 눌러 죽였더니 용마가 나타나 울고 갔다는 아기장수 전설의 기본형으로는 「가덕도 아기장수 이야기」²⁾와 「동래의 관황묘」를 들 수 있다.

동래구 명륜동 447번지의 관황묘가 있었던 자리는 김장군이라는 아기 장수가 태어난 집터였다. 이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일어나고 천정에도 달라 붙기도 하는 신동이였다. 이 말을 전해들은 김

1) 지금까지 부산 전설은 주로 부산 설화를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가운데 부분적으로 다루어져 왔다. 부산시 강서구 설화를 대상으로 한 허무영(「부산 강서구 설화의 구조와 특성」,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부산 설화와 대마도 설화의 전승유형을 비교한 류종목·정규식·박기현(「부산과 대마도 설화의 전승양상과 유형별 비교」, 『한국민속학』41, 한국민속학회, 2005)·영도의 봉래산과 관련한 설화를 대상으로 한 정용수의 「OSMU 방식의 문화콘텐츠 제작 연구 ; OSMU 활용을 위한 부산 설화의 기초 연구 ~부산이 삼신산 봉래의 고장이다~」, 『석당논총』 42,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2008)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부산 전설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는 2008년부터 시작되었다. 부산 일대에 전승되는 당제유래전설을 대상으로, 여기에 수용된 광포전설 및 지역전설의 변형양상과 부산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찰한 권도경의 일련의 연구(「부산 지역 당제유래전설에 나타난 광포전설의 유형적 특징과 지역적 특수성에 관한 연구」, 『부산연구』 4, 신라대학교 부산학연구센터, 2007; 「부산 지역 당제유래전설에 나타난 ‘지역전설’의 유형적 특징과 지역적 특수성에 관한 연구」, 『부산연구』 5, 신라대학교 부산학연구센터, 2008)가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

2) 부산직할시사편찬위원회, 1991, 「가덕도 아기장수 이야기」 『부산시사』 제4권, 1382쪽

해의 안장군은 이곳에 찾아와서 골상을 보니 장래 비범한 사람이 될 것으로 보이기에 다가올 앞날을 두려워하여 그 자리에서 아이를 죽였다. 3)

여기서 김장군은 “태어나자마자 일어서고”, “천정에도 달라붙기도 하는” 아기장수의 전형적인 자질을 지니고 있는 존재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자질을 두려워하는 안장군이라는 기존세력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아기장수 전설의 기본형다운 서사구조를 충실히 따르고 있다.

부산의 아기장수 전설의 하위유형 중에서 주목되는 변이형은 아기장수 전설의 생존형 중에서 하위유형에 해당하는 청년형과 노년형이다. 전자에는 「삼성대(三聖臺) 주산당(主山堂)」⁴⁾이 속하고, 후자에는 「머느리 때문에 발복 못한 명지」⁵⁾가 해당된다. 전국적으로 분포하는 아기장수 전설의 전승양상을 보면 드물게 아기장수가 어려서 살해당하지 않고 살아남아 있는 생존형이 존재한다. 부산을 제외한 여타 지역에서 확인되는 아기장수 전설의 생존형에는 청년기까지 성장했다가 죽임을 당하는 청년형과 불구의 몸으로 은둔하여 여생을 마치는 불구형, 기득층과의 대결에서 성공하는 성공형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아기장수 전설의 생존형 중에서 청년형은 호남지역과 서울 지역에서 확인되며, 불구형은 충청도⁶⁾와 인천 지역⁷⁾에서, 성공형은 제주도와 울릉도

3) 「동래의 관황묘」, 부산시청 홈페이지 <http://www.busan.go.kr>

4)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1996, 「삼성대(三聖臺) 주산당(主山堂)」 『부산지명총람』 제2권, 동래구 명륜동, 229쪽

5) 부산직할시사편찬위원회, 1991, 「머느리 때문에 발복 못한 명지」 『부산시사』 제4권, 1379~1380쪽

6) 최래욱, 1981, 『한국 구비전설의 연구』 일조각, 239쪽

7) 소인호, 2000, 「서해안지역 설화의 특성 연구」 『口碑文學研究』 제10집.

지역에서만 나타난다. 이러한 아기장수 전설의 지역적인 변이양상과 분포도의 차이는 해당 지역의 정체성과 특수성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제주도와 울릉도 지역에서 여타의 지역에서는 전승되지 않는 아기장수 전설의 성공형이 전승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본토에 비해서 불모의 땅이며 폐쇄된 사회라는 불리한 여건에서 벗어나려고 아기장수를 살아남게 하여, 그러한 영웅을 어느 정도 보상을 받으려고”하는 지역민의 의식이 반영되어 있다는 기존 연구 성과⁸⁾가 제출된 바 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부산 지역에 전승되는 아기장수의 청년형과 노년형에 반영되어 있는 지역적인 특수성이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 바, 여타의 지역에 반영되어 있는 타 지역의 향유의식과 구분되는 구분되는 부산 지역의 정체성을 추출하는 것이 과제가 된다.

먼저 아기장수 전설 생존형 중에서 청년형에 해당되는 「삼성대(三聖臺) 주산당(主山堂)」의 텍스트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조선 선조 9년에 한 노부부가 용꿈을 꾸고 아들을 얻었다. 자라서 밤이면 집을 나가 군사훈련을 하고 동래부 관아 공사에 쓸 대들보를 옮겨놓는 등 신이한 일들을 행하였다. 동래관아에서 상소를 올리자 나라에서 역적이라 하여 서울로 잡아 올렸다. 어미가 삼족이 멸할 것을 걱정하자 스스로 죽을 결심을 하였으나 향리들이 칼로 목을 내리쳐도 죽지 않았다. ‘김장군’이라는 현판을 내려주면 죽겠다고 하여 그렇게 하였더니 거드랑이 날개를 견고 매를 치면 죽는다는 방법을 알려준 뒤에, 선조 25년에 발생할 임진왜란을 예언하고는 죽었다. 나라에서는 김장군이 죽은 뒤에 현판을 없애버렸다. 김장군이 예언한 대로 임진왜란이 일어나 전국토가 황폐화 되었다. 김장군이 죽은 후

8) 최래욱, 1981, 『한국 구비전설의 연구』 일조각, 239쪽

동래부에서 제사를 올려 넋을 위로 하고 있다.

「삼성대(三聖臺) 주산당(主山堂)」 전설에서 아기장수는 이본에 따라 육칠세 혹은 열두살까지 죽지 않고 살아남아 청소년으로 성장한다. 호남 지역이나 서해안 일대, 서울 지역에서 확인되는 아기장수 전설 생존형의 청년형에 해당하는 것이다. 「삼성대(三聖臺) 주산당(主山堂)」에서 또 한 가지 주목되는 것은 아기장수인 김장군이 동래구 일대를 주관하는 마을당제의 주신으로 좌정해 있다는 사실이다. 아기장수를 당신(堂神)으로 숭앙하는 경우는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사례에 해당된다. 여기에는 임진왜란을 대비하지 못하고 부산 지역을 왜적의 노략질에 고스란히 노출시킨 기득층에 대한 불신과 지역공동체를 수호할 민중출신의 영웅에 대한 회구의식이 내재되어 있다. 「삼성대(三聖臺) 주산당(主山堂)」에서 김장군과 대결하는 기득층은 임진왜란으로부터 부산 지역을 수호할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한 기득질서가 되며, 김장군은 부산 지역이 지역공동체를 수호하기 위해 주체적으로 배출한 민중영웅이 된다. 「삼성대(三聖臺) 주산당(主山堂)」에 등장하는 김장군이 단순히 자신이 주축이 된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려다 실패한 일반적인 아기장수로 그치지 않고, 마을당제의 당신으로 좌정할 수 있는 것은 이처럼 지역공동체의 안녕과 평안을 기원하는 지역민의 염원이 투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임진왜란이라는 지역사의 특수한 경험이 현실세계에 대한 김장군의 패배를 지역민 전체의 생활기반 파괴 혹은 지역공동체의 붕괴와 동일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한 결과 아기장수를 마을당제의 주신으로 신격화 하는 특이한 향유의 양상이 빚어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아기장수의 노년형에 속하는 텍스트인 「며느리 때문

에 발복 못한 명지」⁹⁾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 노인이 임종 직전에 자기 마누라와 며느리 몰래 자기 목을 잘라다가 다대포 샘에 넣어달라고 아들에게 유언했다. 아들이 아버지 목을 잘라다가 다대포 샘에 가니 샘은 말라있고 안에 작은 함이 있어서 목을 넣고 덮고 나자 물이 찼다. 노인의 유언을 엿들었던 며느리가 아들과 부부싸움 중 엿들은 내용을 이야기 하니 마을에 소문이 나서 마을사람들이 아들을 죽이려했다. 마을사람들이 다대포 샘을 파서 함의 덮개를 열어보니 한 장수가 백만 군졸을 거느리고 말을 타고 일어서려 하다가 사라졌다는 이야기이다.

「며느리 때문에 발복 못한 명지」의 주인공인 아기장수는 아기인 상태로 가족에 의해 살해되지 않고 노년까지 살아남아 자식까지 낳는 등 자연발생적인 임종을 맞기까지 생존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부산 지역에 「며느리 때문에 발복 못한 명지」와 같은 아기장수 전설의 생존형 중에서도 노년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아기장수 전설의 노년형 텍스트에서 주목되는 것은 아기장수 전설 생존형의 하위유형 중에서 제주도와 울릉도의 성공형을 제외하고는 아기장수의 생존기간이 여타의 그 어떤 지역에 전승되는 하위유형 보다도 확대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아기장수가 기득층의 헤게모니에 저항하고 새로운 질서를 회구하는 민중층의 염원이 투영된 캐릭터라고 할 때, 「며느리 때문에 발복 못한 명지」와 같은 아기장수 전설의 노년형 텍스트에서 확인되는 생존기간의 확대는 비록 텍스트의 문면에는 직접적으로

9) 부산직할시사편찬위원회, 1991, 「며느리 때문에 발복 못한 명지」 『부산시사』 제4권, 1379~1380쪽

형상화 되어 있지 않지만 아기장수의 저항운동 기간의 확대를 의미한다. 「며느리 때문에 밭복 못한 명지」에서 아기장수가 노년이 되어 임종을 맞으면서 자신의 목을 잘라 다대포 샘의 함 속에 넣어달라고 한 것은 아기장수로서의 과업 수행을 위한 기반이 노년이 되어서야 거의 완수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목을 잘라서 다대포 샘의 함 속에 넣어달라는 유언은 새 시대를 열기 위한 투쟁의 도구가 되는 용마와 군졸들을 거느리기 위해 늙어버린 몸을 젊은 몸으로 바꾸기 위한 일종의 환골탈태 과정에 해당된다. 현실세계의 일상적인 몸을 버리고 노년까지 생존해 있으면서 준비해둔 혁명의 기반을 현실화 시킬 아기장수 본연의 몸으로 교체하기 위한 통과제의의 과정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산 지역에는 아기장수 전설의 생존형과 실패형이 결합된 특이한 변이형이 전승된다. 「삼정자(三亭子)의 삼장사(三壯士)」¹⁰⁾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텍스트이다.

기장군 철마면 구칠리 점티마을 서쪽 개울가에 삼정자라는 정자가 있었다. 지금은 정자는 없어지고 커다란 바위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옛날 조선시대 이곳에 삼 형제가 살고 있었는데 몸이 장대하고 힘이 장사였다. 모두 겨드랑에 작은 날개 같은 비늘이 붙어 아무도 그들의 힘을 헤아릴 수 없었다. 이들은 큰 산이라도 둘러 뺨을 힘을 가진 장사들이었지만 미천한 신분 때문에 무과(武科)에 응시하여 과거를 볼 수도 없고 무사가 될 수도 없었다. 그래서 삼 형제는 울분을 참지 못해 이곳 개울가에 바위를 뺨아서는 집어 던지면서 치솟는 힘을 달래었다. 그러나 맏형은 결코 힘자랑을 하지않는 반면 동생들은 바위들을

10) 부산직할시사편찬위원회, 1991, 「삼정자(三亭子)의 삼장사(三壯士)」『부산시사』 제4권,

뿔아 던지면서 늘 힘자랑을 하였다. 한번은 개울가에서 동생 둘이서 바위를 들어 올리기 내기를 하였다. 먼저 셋째가 큰 바위를 들어올리고, 둘째는 그 보다 배되는 것을 들어 올렸다. 보고 있던 말형은 "온 고걸 가지고 그렇게 끙끙거리나" 하더니 둘째보다 두배가 되는 바위를 번쩍 들어서서 저만큼 갖다 버렸다. 이를 본 아우들은 평소에 형이 그렇게 힘이 센 줄 몰랐던 만큼 매우 놀랐으며 또한 끝없이 부끄러워하였다. 그러자 말형은 동생들에게 우리가 시절을 잘못 만나 힘을 펴지 못하게 되었으니 누구를 원망하리오 하면서 은인자중 하였다고 한다.

이 텍스트에서 “미친한 신분”이란 태생적 한계 때문에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지 못한 채 살았다는 세 장사의 실존은 아기장수의 그것에 그대로 대응된다. 특히 세 장사의 겨드랑이에 붙어 있다는 “작은 날개 같은 비늘”이나 아무도 헤아릴 수 없는 “힘”은 아기장수의 전형적인 표징이다. 그런데 이 세 장수는 아기장수의 원형 캐릭터처럼 사회적 신분과 불화하는 탁월한 능력 때문에 어려서 죽임을 당하지 않고 청년기까지 살아남아있으며, 그 능력을 남 앞에서 드러내지 않고 숨긴 채 평생을 생존한다. 아기장수다운 능력을 스스로 봉인한 채 일상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아기장수로서의 능력을 거세당한 불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삼정자(三亭子)의 삼장사(三壯士)」는 아기장수 전설의 생존형과 불구형이 결합된 텍스트라고 볼 수 있겠다.

2. 장자못 전설

부산 지역에는 ‘학승(虐僧)~금고(禁顧)~함몰(陷沒)~석화(石化)’의 서사구조로 이루어진 장자못 전설의 기본형이 확인되지 않는

다. 장자못 전설의 기본형은 못이나 호수의 유래를 설명하는 것을 골조로 하는 바, 부산 지역에서 확인되는 장자못 전설 기본형의 부재는 못이나 호수와 같은 자연물의 부재양상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산 지역 장자못 전설의 변이형에서 먼저 주목되는 것은 풍수파혈형이다. 「용호동 제당」¹¹⁾과 「생거북 바위」가 여기에 속한다. 이들 텍스트에서 나타나는 장자못 전설의 풍수파혈 모티프는 일반적으로 장자가 탐욕을 부리다가 풍수명당을 파훼(破毀)한 결과 징벌을 당한다는 구조로 되어 있다. 장자못 전설 기본형의 ‘학승(虐僧)’ 모티프가 ‘축객(逐客)’으로, ‘금고(禁顧)’의 금기모티프가 ‘풍수파혈(風水破穴)’로, ‘함몰(陷沒)’ 모티프가 ‘가산패망(家產敗亡)’으로 대체되어 있는 것이다. 여기서 기본형의 ‘석화(石化)’나 ‘생지(生池)’ 모티프만 빠져있다. 증거물이 연못이 아니라 바위 등의 다른 지형지물로 대체되어 있기 때문에 일어난 변형인 것으로 보인다.

㉔120년 전 용호동 금령 김씨 집에 힘센 3형제가 살았다. 부유한 이집에 과객이 많이 찾아오자 자기 집에 온 도사에게 과객수를 줄이는 비방 달라 했다. 도사가 장산봉에 있는 대마도를 향해 솟아 있는 바위를 깨라 하기에 시키는 대로 하니, 부서진 바위에 피가 흥건하였다. 마을사람들이 보통바위가 아니니 당을 짓고 바위를 모셔야 된다 하자 정명수가 사재 털어 당을 짓고 바위 모시고 기도하니 자식 얻었다.

㉕어느 부자는 매일 찾아오는 식객(食客)을 성가시게 여기고 있

11)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1997, 「용호동 제당」 『부산지명총람』 제3권, 남구 용호동, 83쪽.

었다. 마침 자신의 집을 찾아온 도사에게 그는 식객을 오지 않게 하는 방도를 물었다. 그러자 도사가 집 근처의 지형(地形)·지물(地物)을 훼손하면 된다고 하였다. 그래서 집주인은 대사의 지시대로 지형·지물을 훼손했는데, 오히려 집안이 차차 빈궁하게 되었다.¹²⁾

㉠ 텍스트는 현재의 부산시 남구 용호동에 전래하는 텍스트로, 용호동 제당(祭堂)에서 숭배하는 신물(神物)의 유래를 설명하기 위해 장자못 전설의 풍수파훼 모티프를 끌어온 경우이다. 용호동 제당의 신체(神體) 유래전설이 이러한 장자못 전설의 풍수파훼 모티프와 결합될 수 있는 기반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제당이 위치한 용호동이 원래는 호수 지역이었다는 사실이다. 용호동의 장산봉(長山峰) 아래에는 원래 큰 못이 있었는데, 그 못에는 하늘로 오르지 못한 이무구가 살고 있었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이 용호동 일대의 연못은 용호만의 바닷물이 들어와서 이룬 늪지였기 때문에 농사에는 적합하지 않았으며, 민가도 많지 않았다. 늪지와 연못이 매립되면서 지역 공동체가 본격적으로 발전하였다고 할 수 있는데, 지역의 발전 과정에서 마을의 주산인 장산봉 아래에 위치한 거대한 바위가 마을신앙의 대상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을 당제유래전설의 내러티브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원래 마을 자리에 존재해 있던 용호(龍湖)에 대한 기억이 장자못 전설이라는 광포전설의 서사를 견인해 들이는 요인이 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두 번째는 늪지와 호수가 매립되면서 연못이 증거물로서의 일차적인 구속력을 갖지 못하게 된 대신에 그 자리에 위치해 있는 자연석이 직접적인 증거물로서의 구속력을 갖게 된 결과 장자못

12)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리지 홈페이지 <http://simjeon.kr/xe/5451>

전설의 기본형이 아니라 풍수파훼 모티프의 내러티브와 결합되게 되었다는 것이다. 장자못 전설은 연못과 호수의 생성 유래를 설명하고자 하는 전설의 유형이다. 그런데 용호동은 이미 연못과 호수가 매립되어 사라졌기 때문에 더 이상 증거물로서의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자연석이 매립지에 들어선 마을 신앙의 대상이 되면서 당제의 유래를 절명하고자 하는 전설 텍스트 형성과정에 바위가 증거물로서의 핵심적인 구속력을 지니고 있는 장자못 전설의 풍수파훼 모티프가 결합되게 된 것이다.

㉞는 부산시 철마면 연구리 구림마을에 전승되고 있는 생거북 바위에 관한 전설이다. ㉟와 마찬가지로 부자, 즉 장자(長子)가 자신의 집에 찾아오는 식객들이 귀찮아 물리칠 방법을 도사에게 구하여 풍수파훼를 했더니 집안이 망했다는 것으로, 지형지물의 파훼가 금기로 제시되고 그러한 풍수파훼의 결과가 가산의 적몰과 파훼된 지형지물인 바위의 증거물로 남은 경우이다.

다음으로 주목되는 것은 장자못 전설의 폐탕(廢湯) 유형이다.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전승되고 있는 「해운대온천」¹³⁾이 대표적인 텍스트이다. 해운대온천의 폐쇄 유래를 설명하는 이 텍스트는 대마도 왜인들이 이곳 온천으로 온천욕 하러 와서 귀찮게 되자 마을 사람들이 솟아오르는 온천을 막았다는 설, 해운대온천이 피부병에 특효가 있다 해서 문둥병 환자가 전국에서 몰려들자 천원을 주민들이 막았다는 설, 경상좌도 수군절도사영이 바로 이곳에 있어 좌수영 군사들이 목욕하러 와서 민폐를 끼치자 천원을 폐쇄했다는 설의 세 가지를 제시한다. 원래 해운대구는 부산의 대표적인 온천 지역이 아니다. 『동국여지승람』에도 해운대에 예

13)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1997, 「해운대온천」, 『부산지명총람』 제3권, 해운대구 우동, 244쪽

로부터 유명한 온천이 존재했다는 기록이 등장하지 않는다. 해운대 온천이 본격적으로 개발되었다는 기록은 부산 개항 후인 1887년에 일본인 의사가 개발하여 구남온천(龜南溫泉)으로 명명했다는 것이 최초이다. 그러나 「해운대온천」의 텍스트 속에 경상좌도 수군절도사영이라는 조선시대 군제(軍制)가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대규모의 형태는 아니지만 해운대 지역에 최소한 조선 시대에 온천이 존재했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에 존재했던 해운대 온천은 특정한 시기에 폐탕이 되어서 1887년에 일본인 의사에 의해 본격적으로 개발될 때까지 온천으로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바, 「해운대온천」은 바로 이러한 해운대 온천의 폐탕 유래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폐탕이 되기 이전 단계에서 해운대 온천은 이 일대 지역공동체의 중요한 생활기반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생활용수를 공급함은 물론 온천을 통한 상업과 관광의 수요도 존재했을 것이다. 해운대 온천이 지역공동체에 풍요를 가져다주는 원천의 하나가 되었다는 것인데, 지역사에서 이러한 해운대 온천의 폐탕은 지역공동체의 유지와 번영에 심각한 위해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공동체의 생활에 불모의 위기를 안겨준 폐탕의 유래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장자못 전설이 수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해운대온천」에서 해운대 온천 폐탕 유래를 장자못 전설의 내러티브를 기반으로 하여 설명하는 것이 가능한 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장자못 전설의 호수·연못이라는 자연적인 증거물이 지니는 기능이 「해운대온천」의 해운대 온천과 근본적으로 동일하다는 사실이다. 장자못 전설에서 자연적인 증거물이 되는 호수와 연못 역시 해운대 온천과 마찬가지로 지역공동체의 농업·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중요한 산업자원으로서 지역공동체의 유지와 번영에 직결되는 기반이 된다. 두 번째는

장자못 전설에서 폐가(廢家)와 함몰(陷沒), 석화(石化)라는 경험적인 증거물이 보여주는 불모의 이미지가 「해운대온천」의 자연적 증거물인 폐탕(廢湯)의 그것과 동일하다는 사실이다. 차이점은 장자못 전설이 폐가·함몰·석화라는 불모의 결과를 통해 거꾸로 호수·연못의 형성이라는 새로운 풍요를 위한 기반을 형성하는 과정을 설명함으로써 정~반~합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데 반해, 「해운대온천」은 온천의 풍요함에서 폐탕의 불모함으로 결구되는 정~반의 구조로 그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마지막 장자못 전설의 변이형은 장자의 탐욕으로 인한 금기 파괴가 일반적인 지형지물과 관련된 풍수금기 혹은 풍수파혈로 대체되고, 증거물인 연못을 바위나 섬 등으로 대체하여 풍수파혈 모티프를 확대한 유형의 텍스트는 장자못 전설의 기본형에 비해 부산 지역 일대에서 상대적으로 풍부하게 확인된다. 「생도(生島)」, 「영도의 풍수지리설」 등의 텍스트가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

⑦영도의 절경인 태종대 앞바다에는 크고 작은 여러 개의 바위섬들이 솟아있다. 그중 유독 섬하나가 주전자처럼 생겼다고하여 사람들은 주전자섬이라고 부른다. 예로부터 이 섬에서는 용변을 보거나, 불을 피워서도 안되고, 남녀가 정을 나누어도 안 된다는 세가지 금기사항이 전설로 전해지고 있다. 옛날 한 어부가 주전자섬에서 고기를 잡다가 갑자기 용변이 마려워 어구를 설치해 놓은 채 용변을 보았더니 그 날 이후부터는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고 어구만 계속 잃자 화병으로 결국 죽고 말았다고 한다. 또 같은 마을에 사는 어부들이 고기를 잡다가 매서운 추위를 이기지 못해 주전자섬에서 불을 피웠는데, 이 때 근처에 있던 늙은 어부가 이 섬은 옛날부터 불을 놓으면 큰 재난을 당한다는 말이 있어

당장 불을 끄도록했으나 어부들은 예사롭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때부터 이상하게도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으며 그 날 밤 꿈속에서 어부들은 주전자섬이 불덩어리로 변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 후부터 이들이 하는 일은 모두 실패로 돌아갔고 끝내는 원인 모를 병으로 앓다가 모두 죽고 말았다 한다. 또 하나는 남녀가 정을 일으키면 벼락을 맞거나 큰 봉변을 당한다는 것이다.¹⁴⁾

④영도는 풍수지리설에 의하면 학맥설(鶴脈設)이라 한다. 선사시대부터 영도는 산림이 울창하고 초목이 무성하여 목장으로 적격이었고, 수목이 청청하여 청학이란 이름이 유래되어 오늘의 청학동이라는 동명도 유래된 것이라 본다. 통계학적인 풍수설에 의하면 해운대에서 영도를 바라보면 마치 학(鶴)이 남쪽으로 나르는 형태를 이루고 있다고 한다. 선사시대에는 동삼동과 지금의 해양대학교가 있는 아치섬이 육지로 연결되어 있었고 아치섬은 학의 왼쪽날개이며, 현 신선동을 거쳐 남서쪽의 남항동이 오른쪽 날개이고, 봉래산 산정은 학의 등지로 남쪽으로 나르는 학맥설로 단정되었다고 한다. 왼쪽 날개격인 아치섬이 지형변동으로 동삼동 사이가 몰락되어 바다가 되므로 왼쪽 날개가 잘렸다 하여 영도에 는 다음과 같은 액운설이 전래되어 왔다.

- * 영도의 원주민은 흥망성쇠가 무상하여 타처로 이주할 것이며,
- * 외지에서 이곳 영도에 이주한 자는 흥성하되 20년을 넘기지 못하며,
- * 영도는 그림자 없는 섬이라 대대손손 면면치 못할 것이라는 풍수지리설이 전해져 왔다.¹⁵⁾

14) 영도구 홈페이지 <http://youngdo.cjb.net>

15) 영도구 홈페이지 <http://youngdo.cjb.net>

㉑는 부산시 영도 앞바다의 작은 섬인 생도에 전해지는 텍스트이다. 불을 피워서도 안되고, 용변을 봐서도 안되고, 남녀가 정을 나눠서도 안된다는 세 가지 금기가 전해지는 섬으로, 이를 어긴 섬 사람들은 어업의 생업을 파산하고 모두 죽는다는 것이다. 생도라는 섬 자체가 풍수적으로 신성한 공간 즉, 혈지(穴地)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러한 혈지를 더럽히는 세 가지 행위가 일종의 풍수파혈의 금기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풍수파혈의 일반적인 증거물로 등장하는 바위가 섬으로 대체된 것으로, 해양문화권인 부산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㉒는 부산시 영도구의 영도 섬에 전해지는 텍스트로, 영도라는 섬 자체가 나르는 학과 같은 신성한 혈지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에서 ㉑와 그 인식체계가 동일하다. 특이한 점은 풍수파혈의 과정 자체가 서사화 되지 않고, 아치섬, 남항동, 봉래산으로 이어지는 학의 양쪽 날개와 둥지가 파혈된 결과 영도 원주민들이 영도에서 생업을 유지하지 못해 타지로 이주하고, 외지에서 이주해도 20년을 넘기지 못하며, 영도 주민들은 자손이 대대손손 이어지지 못한다는 풍수파혈의 결과론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영도 주민들의 간난한 섬 살이가 풍수파혈을 매개로 한 패배론적인 인식을 낳은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3. 산이동 전설

산이동 전설은 산이나 섬이 이동하여 현재의 위치에 자리잡게 된 유래를 설명하는 전설의 한 유형이다. 해안·도서 지역에서는 주로 섬이동 전설로 나타나는데, 부산 지역에 분포하는 산이동 전설 역시 이러한 섬이동 전설의 형태를 띠고 있다. 강서구 대저동에 전승되는 「빨지섬」¹⁶⁾이 대표적인 텍스트이다. 빨지섬은 어

느날 모래톱으로 섬이 이루어졌는데, 옛날 김해군과 양산군의 경계지점으로 행정관할이 분명치 못하여 김해군에서 세금을 부과하면 양산군 소속이라 하고, 양산군에서 오면 김해군 관할지역이라 하여 조세부담을 면할 수 있게 되었다. 김해군과 양산군청에서는 이 곳을 얼굴에 나타난 빨지처럼 귀찮게 여겼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산이동 전설이 섬이동 전설로 변형되게 되면 산이동 모티프와 산세다툼 모티프는 각각 섬이동 모티프와 섬세다툼 모티프로 교체된다. 「빨지섬」에서는 섬이동 전설의 기본형에서 또 한 차례 변이가 일어났다. 섬이동 모티프가 섬형성 모티프로 변형되어 있는 것이다. 이처럼 「빨지섬」에서 확인되는 섬이동 전설의 변이양상은 낙동강 하구에 위치한 부산의 지형적 특수성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빨지섬」의 전승권역인 강서구 대저동은 낙동강 하구에 위치한 부산 지역 중에서도 최남단의 퇴적지에 위치해 있다. 대저동이라는 동명 자체가 낙동강 하구의 퇴적 작용으로 형성된 큰 섬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빨지섬」이 부산 지역이 아니라 낙동강 중·상류에 위치한 경북 지역에 전승되는 텍스트였다면 섬의 형성이 아니라 섬이 흘러들어와 정지한 섬이동 전설의 기본형으로 내려티브가 짜여졌을 것이다. 그러나 부산 지역은 낙동강 중·상류를 타고 내려온 토사가 축적되는 지점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섬이동 모티프가 섬형성 모티프로 변형되어 있는 것이다.

한편, 섬세다툼, 즉 도세(鳥稅) 다툼 모티프 역시 대저동의 역사·지리적인 맥락과 결합되어 있다. 대저동은 조선시대에는 원래 조선시대에는 양산군에 속해 있다가 1906년부터 김해군에 편

16)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1999, 「빨지섬」 『부산지명총람』 제5권, 강서구 대저동, 137쪽

입되었고, 다시 1978년에 부산시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1978년에 부산시 관할로 변경될 때까지 양산군과 김해군, 부산시 이 세 지역의 경계에 위치한 지리적인 특수성 때문에 행정관할 다툼의 대상이 되어왔다. 현 대저동의 이러한 지역사를 통해서 볼 때, 「뿔지섬」의 텍스트 형성 시기는 대저동이 부산시 관할 행정구역으로 최종 변경되기 이전에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뿔지섬」에서 확인되는 도세(鳥稅) 다툼 모티프는 영남 지역을 관통하여 흐르는 낙동강의 최종 기착지가 되는 부산 지역의 지리적·지형적 특수성을 역사적인 배경으로 하여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오누이 힘내기 전설

부산 지역에는 여성 신격과 남성 신격의 신성한 힘의 대결과 여성 신격의 패배를 오누이의 힘내기와 누이의 패배로 형상화한 오누이 힘내기 전설의 기본형이 단 한편도 전승되지 않는다. 다만, 남신과 남신의 힘내기 형태의 텍스트는 전승된다. 「잠피(蠶峰) 산성놀이」가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

옛날 바다와 산이 어산(魚山) 앞에서 맞닿아 바다에서 오는 해신과 산에서 오는 산신이 서로 다투었는데, 산신이 이르기를 여긴 바다가 아니고 강의 한 섬(涉)이니 너 설 자리가 아니라고 타일렀으나 해신은 자주 주민과 가축에게 피해를 주었으므로 이를 달래기 위해 마을제를 지내고 줄다리기 놀이를 하였다.¹⁷⁾

17)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1999, 「잠피(蠶峰) 산성놀이」 『부산지명총람』 제5권, 강서구 구랑동.

잠피는 부산시 강서구 구랑동 구랑(九朗)과 대압(大鴨) 사이에 있는 마을이다. 주민들이 매년 봄, 음력 3월 3일이나 4월 초파일 에 마을제를 지내는데, 이 마을제의에서 행해지는 줄다리기 놀이 의 유래를 설명하는데, 오누이 힘내기 전설의 여신 대 남신의 대 결을 남신 대 남신의 대결로 변형하여 가져오고 있다. 해신(海神)과 산신(山神)인 두 남성 신격이 지역 신성권역의 헤게모니를 사이에 두고 다투게 되자, 이 두 남성 신격의 주도권 다툼을 화 해의 모드로 바꾸기 위해 지역민들이 힘내기의 놀이화 형태인 줄다리기로 바꾼 데서 잠피 산성의 줄다리기 놀이가 유래했다는 것이다. 지역의 주도권을 사이에 둔 헤게모니 다툼은 산이동 전 설의 산세 다툼과도 유사한 측면이 있다. 내륙에서 뻗어 나오는 산맥이 해안가에서 멈추는 지점에 위치한 지역의 지리적 특수성 이 여신과 남신의 대결을 해신과 산신의 두 남성 신격의 대결로 변형시킨 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Ⅲ. 부산 광포전설에 나타난 로컬리티

1. 해안도서 지역 특유의 여성성

부산 일대는 전형적인 도서해안 지역으로 여성들의 생활력이 강하게 발휘되는 곳이다. 일반적으로 도서 및 산간 지역에는 여 성들이 척박한 지리환경 속에서 간고한 노동을 감내하며 가족들 의 생계를 책임지는 삶의 과정 속에서, 이들 여성들의 강인함을 기반으로 한 여성신 관념이 형성되어 향유되어 오기 마련이다. 그 구체적인 현실적 상관물은 여성신을 모시거나 여성이 주재하

는 마을굿, 당제 혹은 당산제 등으로 나타난다.¹⁸⁾

부산 지역에는 하위 생활단위 권역을 중심으로 수많은 여성신 관념이 존재한다. 영등할망 혹은 영동할망, 고당할미, 고모신, 영도할미, 아씨당신 등이 바로 이처럼 부산 일대에 산재해 있는 여성신 관념이다. 먼저, 영등할망 혹은 영동할망은 해안 지역 일대에 분포하는 신앙관념으로 제주로를 비롯한 남해안 일대에서 어업과 농업을 돌봐주는 바람의 여신으로 숭앙되는 여성신이다. 고당할미와 고모신은 각각 금정산과 장산 일대에 존재하는 여신관념으로, 강원도 일대를 비롯하여 전국의 산악과 고개를 중심으로 산재하는 마고(麻姑) 할미 즉, 마고 여신에 관한 신앙관념¹⁹⁾과 연장선상에 있다. 영등할망 혹은 영동할망이 해안 일대를 관장하는 일종의 여성 해신(海神) 혹은 풍신(風神)이라면, 고당할미와 고모신은 봉우리나 산악 지역에 그 신성권역이 존재하는 여성 산신(山神)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영도할미나 아씨당신은 섬 전체의 자연지물과 해당 도서 주민들의 생활을 관할하는 일종의 여성 도신(島神)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들 부산 지역 여신이 풍부한 부대 전설들을 거느리고 있음은 물론이다.

그런데 이처럼 부산 지역 일대에는 해양도서 지역의 특수성에 기반하여 지역사적으로 향유전통의 기반이 구축되어 있는 여신관념과 그와 관련된 여신 전설이 풍부하게 전승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인여신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오누이 힘내기 전설은 단 한 편도 전승되지 않는다. 오누이힘내기 전설은 충청권 이남의 백제 지역 판도에 집중되어 있다는 연구²⁰⁾가 제출되어 있는

18) 이에 대해서는 김월덕, 「호남지역 여성주재형 마을굿의 상징성과 축제성~정읍시 북면 오우리 마을굿을 중심으로」, 『한국민속학』 46, 한국민속학회, 139~169쪽, 2007을 참조하기 바람.

19) 마고할미 전설과 그 신앙관념에 대해서는 강진욱, 「마고할미」 설화에 나타난 여성신 관념, 『한국민속학』 25, 민속학회, 1993을 참조하기 바람.

바 있는데, 대구·경북 지역에서도 그 전승이 확인되는 오누힘내기 전설을 부산 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은 광포전설의 지역적 분포도 속에서 특기할 만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전북 진안과 경남 합천 사이에 위치한 경상남도 거창군의 경우에는 오누이 힘내기 텍스트들이 다수 전래한다. 「하성」같은 텍스트가 대표적인 경우로, 오누이 힘내기에서 누이가 결국 성을 완성하지 못하고 성을 쌓기 위해 가져가던 돌을 버려 그 돌이 증거물로 남는다는 이야기²¹⁾이다. 계모에 의해 오누이가 대결을 벌이는데, 아들은 말을 주어 천리를 다녀오게 하고 딸은 뒷산에 성을 쌓게 하는 형태로 누이와 남동생의 대결이 구체화되어 있다. 이러한 오누이 힘내기 전설은 일반적으로 거인 여신과 거인 남신의 대결이 거인 여신의 패배로 귀결되며, 거인 여신의 부정적 형상화 혹은 거인 여신에서 거인 남신으로의 주도권 교체, 거인 여신의 죽음 등을 동반하기 마련이다.

오누이 힘내기 설화에서 누이신은 결국 거인 여성 창조신에 해당되는데, 부산 지역에서는 여성 거인 창조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 단계는 나타나도 대결에 의한 결정적인 패배는 나타나지 않는다. 비근한 예로 영도를 떠나는 지역민들에 대한 영도할매의 해꼬지를 형상화 한 자료들을 들 수 있다.

봉래산 조봉 정상에 위치한 바위로 할미바위는 시샘이 많아 영도 사람이 돈을 가지고 객지로 나가면 망한 뒤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설화가 남아 있다.²²⁾

20) 최래옥의 연구에 의하면 오누힘내기 전설은 옛날 백제 판도에 밀집되어 주로 충청 이남 지역에 편재적으로 분포되고 있다.(최래옥, 『한국 구비전설의 연구』, 일조각, 1981, 194쪽)

21) 박종섭, 1991, 「하성」 『거창의 전설』 문창사 91~94쪽

22) 「할미바위 전설」, 부산문화지리지홈페이지, <http://www.busan.com/2009/wnj/pop11.html>

봉래산 조봉 정상에 있는 할미바위는 바로 영도할미 바위를 일컫는다. 그런데 영도 주민들이 돈을 가지고 객지로 나가면 반드시 망하게 되며, 결국은 다시 영도로 귀환하게 된다는 것은 표면과 이면의 이중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먼저, 표면적으로 이러한 텍스트의 기술 내용은 영도할미를 영도 주민들의 삶에 위해를 가하는 부정적인 존재로 형상화 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런데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일상을 뛰어넘는 영도할미의 신성한 능력이 확인된다. 돈을 가지고 객지로 나가는 영도 주민들을 망하게 하는 영도할미는 궁극적으로 영도 지역민들의 가산과 생활의 여탈권을 지니고 있는 신성한 존재임이 드러나는 것이다. 한편, 망한 영도 주민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영도할미는 거꾸로 영도라는 지역에 속한 인(人)·물(物)을 주재하는 주재자신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일종의 부정적인 방법으로 영도할미의 신성관념을 현시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결국, 텍스트 표면에 드러난 부정적인 영도할미의 형상은 원래 영도라는 도서 지역에 속한 모든 자연물과 인간, 금수 등을 주관하는 주재자신인 영도할미에 대한 신성관념이 약화되어 영도할미 신화 향유층이 해체되는 단계에 접어들게 되면서 이루어진 여신에 대한 부정화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부산 지역 여성신에 대한 부정적 형상화 속에는 여신의 궁극적인 패배가 형상화 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역설적으로 여신에 대한 일부 해체되었으나 일부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신성관념의 현재적 유지 양상을 보여준다. 예컨대 여전히 매년 음력 초하루에서 스무날 사이에는 영도에서 영도할미 당산제의가 거행된다. 바로 이러한 여신 신성관념의 부분적 유지가 바로 부산 지역 오누이 힘내기 전설의 본격적인 형성 장애가 된다고 할 수 있다. 항도, 해양, 도서 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수성

에 기인한 지역의 강인한 여성성과 그에 따른 여신 관념의 부분적 유지가 여신 관념의 남신으로의 완전한 대체 및 여신관념의 완전한 해체를 여신과 남신의 힘내기라는 대결 과정 자체를 통해서 보여주는 오누이 힘내기 전설 텍스트의 본격적인 형성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한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다.

2. 민중적 힘에 대한 자부심

부산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등의 국제전쟁에서 국가수호를 위한 최후의 보루로 존재했으며, 의병운동²³⁾이나 부마항쟁 등 국가의 중대한 위기 때마다 민중운동의 기지 역할을 했던 지역이다. 임진왜란에서는 국가의 나머지 국토를 모두 빼앗긴 상태에서 패전의 전세를 뒤엎은 역습이 시작된 지역이었고, 부마항쟁에서는 전국적으로 일어난 유신독재 반대운동의 최종판으로 정치사의 판세를 뒤집은 결정적인 역할을 한 지역이었다. 이처럼 부산 지역에는 민중이 지닌 힘에 대한 자신감이 지역민의 기억 지평 속에 내재되어 이전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면면히 이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민중적 에너지와 그것이 국가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부심은 부산 지역 아기장수 전설의 특수한 전승양상에서 확인된다.

아기장수는 본질적으로 민중적 혁명에 대한 회귀의식이 낳은 민중영웅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기장수의 비극적인 죽음은 궁극적으로 민중적 혁명 성공 가능성에 대한 비관적 전망을

23) 부산 지역 의병운동의 전개사에 대해서는 강대민, 『근대 부산의 민족운동』, 경인학국학연구총서, 2008을 참조하기 바람.

형상화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부산 지역에 전승되는 아기장수 전설의 대다수는 청년기 혹은 노년기까지 멀쩡히 생존해 있다. 영웅적인 능력을 대 사회적으로 발현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비범한 능력 그 자체는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 이들 부산 지역 생존형의 아기장수들이 일방적으로 대 사회적인 죽임을 당하는 것을 피하는데 성공하고 있는 것이다. 아기장수의 기본형이 혁명의 실현가능성을 애초부터 부정하는 향유층의 좌절감을 반영하고 있다면, 「머느리 때문에 발복 못한 명지」와 같은 아기장수 전설의 생존형·노년형 텍스트는 혁명의 성공가능성을 포기하지 않는 저항정신이 아기장수 전설의 기본형에 비해서 확대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부산 지역 아기장수 인물형상의 문면에는 여전히 지속되는 삶 속에 아기장수로 상징되는 혁명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소망의 끈은 놓치지 않고 있는 부산 지역민의 민중의식이 내재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부산 지역민의 민중의식은 전형적인 기본형으로 비극적인 죽임을 당한 아기장수에 대한 소명, 즉 원혼 달래기 제의로 나타나기도 한다. 「동래의 관황묘」, 「삼성대(三聖臺) 주산당(主山堂)」 등 부산 지역에서는 비극적 죽음을 맞은 아기장수를 당신으로 모신 당제가 존재한다. 죽은 아기장수를 지역 당신으로 모신다는 자체가 민중 스스로가 지역을 수호하고자 하는 민중의식의 발로라고 할 수 있다. 아기장수를 지역민의 안녕을 수호하는 당신으로 좌정시키는 배경에는 아기장수란 캐릭터로 상징되는 민중이 주체가 된 새로운 질서 개창에 대한 희망과 의지가 내재해 있다고도 볼 수 있겠다.

3. 해양방어기지로서의 역사성

부산은 한반도 전체의 역사 속에서 전통적으로 남동해안 최요충지로서 가장 중요한 해양방어기지로서 존재해 왔다. 특히 임진왜란은 한반도 전역을 왜군에 빼앗긴 채 왕실을 포함한 정부 전체가 의주까지 피란을 갔던 국망의 전세를 뒤바꾼 역사가 바로 부산 지역에서 시작된 대표적인 역사적 사건이다. 국가수호의 결정적인 방어기지라는 자의의식이 부산 지역민에게 내재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삼성대(三聖臺) 주산당(主山堂)」 같은 텍스트에서 확인된다.

「삼성대(三聖臺) 주산당(主山堂)」에서 부산이라는 지역은 한반도 전체의 역사 속에서 전면에 부상했던 임진왜란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을 서사의 전면에 부각되고 있다. 텍스트의 공간적인 배경이 되는 동래부는 임진왜란이 최초로 발발한 시발점에 해당된다. 전국에 광범위하게 분포하는 아기장수 전설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은 주로 이성계의 조선 창업·등극이다. 여기서 이성계는 아기장수와 새로운 질서의 주도권을 놓고 경쟁하거나 이미 기득권을 구축한 권력자로 등장한다. 조선 건국기라는 시간적인 배경과 이성계라는 역사적인 인물이 아기장수 전설과 결합되는 양상은 지역사의 특수성과 관계없이 각 지역에 전승되는 아기장수 전설이 공유하고 있는 역사적 맥락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삼성대(三聖臺) 주산당(主山堂)」처럼 임진왜란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이 시간적인 배경으로 설정되고, 선조(宣祖)라는 역사적인 인물이 아기장수 전설의 새로운 질서 창조를 위한 과업을 좌절시키는 적대자로 등장하는 경우는 여타의 지역에서는 잘 확인되지 않는다. 남해를 사이에 두고 일본과 마주하면서 왜구의 침범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으며, 임진왜란

의 시발지이자 최대 격전지로서 그 피해가 미친 영향이 지역사의 일부를 이루는 부산 지역의 특수성이 이러한 지역적인 변이를 야기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아기장수 전설의 주인공이 당제의 주신으로 좌정하게 되는 것도 이러한 해양방어기지로서의 부산 지역민의 특수한 역사지리의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4. 지형·지리적 특수성

부산 일대에 전승되는 광포전설 텍스트들에는 부산 지역만의 지형·지리적 특수성이 반영되어 있다.

첫째, 해양·해안 지역으로서의 특수성이다. 「가덕도 아기장수 이야기」 같은 텍스트에서 경험적인 증거물인 용마의 자취가 섬의 물가에 남았다는 것에서 남해안의 해양 지역을 끼고 있는 부산 지역의 지리적인 특수성이 반영되어 있다. 한편, 「용호동 제당」 같은 텍스트에서는 부산 지역이 남해안에 위치한 해안 지역이라는 지리적인 특수성을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풍수파회의 결과가 김씨 삼형제라는 장자의 가문 차원에 그치지 않고, 용호동이라는 지역공동체 전체로 확산되고 있는 사실은 해안 지대에 채록되는 장자못 전설의 일반적인 특징을 보여준다. 특히, 풍수파회의 대상이 되는 거석이 대마도를 향해 우뚝 솟아 있는 바위라는 사실은 남해안을 매개로 한 대일(對日) 무역이 산업생산의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산 지역의 지역적 특수성이 반영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해안가에 위치한 산악 위에 우뚝 솟아 있는 거석은 도해(渡海)와 항해의 나침반 구실을

한다. 남해안을 오가는 무역이 지역 생산의 중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해안가의 거석이 마을의 안녕과 평안을 주관하는 제당의 신체로 선택된 것이다. 거석이 전설의 사실적인 증거물로만 그치지 않고 풍속신앙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도 이러한 해안 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내륙과 바다의 경계에 있는 해안가 부산의 지리적 특수성은 「잠피산성놀이」 같은 텍스트에서 여신과 남신의 대결을 해신과 산신의 두 남성 신격의 대결로 변형시킨 요인이 되기도 한다. 내륙에서 뻗어 나오는 산맥이 해안가에서 멈추는 지점에 위치한 부산 지역의 지리적 특징이 그 변형이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산악이라는 거대한 자연지물이 행정구역상의 경계를 넘어 이동해 온 유래를 설명하는 산이동 전설의 기본형이 부산 지역에서는 한 편도 확인되지 않는 이유도 해안·해양·도서 지역으로서 거대 산악의 발달이 미약하고, 상대적으로 산악에 대한 지역민의 관심이 타 지역 보다 덜한 지역적 특수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폐탕형으로 장자못 전설이 변이되어 나타나는 텍스트가 풍부한 것도 해안가에서 용천하여 형성된 온천이 곳곳에 산재한 부산의 지역적 특수성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자연적인 특수성이 부산 지역 장자못 전설에서 기본형이 확인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가 된다.

둘째, 동고서저(東高西低)의 지형적 특수성이다. 부산은 동고서저의 형태인 한반도의 지형도에서 동남쪽 끝에 위치하기 때문에 물이 고여서 이루어지는 자연적인 호수나 저수지가 발달하지 않은 지역이다. 자연 저수지나 호수는 서저형 지형에 위치한 전라도 쪽에 발달해 있다. 현재 부산 지역에는 대형 호수나 연못이 존재하지 않는다. 대연동(大淵洞)이나 용호동(龍湖洞)처럼 과거의 일정한 시기에 호수나 연못이 존재했던 사실이 동명(洞名)에 남

아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러한 부산 지역의 호수·연못은 민물이 아니라 바닷물이 넘쳐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농업생산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러한 부산의 지형적 특수성은 장자못 전설의 변이형들에서도 확인된다. 부산 지역에는 '학승(唐僧)~금고(禁顧)~함몰(陷沒)~석화(石化)'의 서사구조로 이루어진 장자못 전설의 기본형이 확인되지 않는다. 장자못 전설의 기본형은 못이나 호수의 유래를 설명하는 것을 골조로 하는 바, 부산 지역에서 확인되는 장자못 전설 기본형의 부재는 못이나 호수와 같은 자연물의 부재양상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농업을 주된 산업수단으로 삼고 있는 까닭에 인근 지역의 농업용수의 생성유래를 설명하고자 함몰에 의한 호수·연못의 형성 과정을 설정하고 있는 장자못 전설 기본형의 미의식과 부산 지역의 호수·연못의 자연적인 조건은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셋째, 낙동강 하구에 위치한 지리적 특수성이다. 부산 지역은 영남권 전체는 거쳐서 흐르는 낙동강의 하구 퇴적지 인근에 위치해 있다. 이러한 이유로 부산에는 해양 도서 뿐만 아니라 하중(河中) 도서도 다수 존재한다. 강서구 대저동에 위치한 빨지섬이 바로 이러한 하중도에 해당하는데, 이 빨지섬에 대한 일종의 섬세 다툼 전설은 바로 낙동강 하구에 위치한 부산의 지리적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다.

빨지섬에 대한 「빨지섬」 텍스트는 산이동 전설의 산세 다툼 모티프를 섬세 다툼으로 바꾼 형태이다. 일반적으로 산이동 전설이 섬이동 전설로 변형되게 되면 산이동 모티프와 산세다툼 모티프는 각각 섬이동 모티프와 섬세다툼 모티프로 교체된다. 「빨지섬」에서는 섬이동 전설의 기본형에서 또 한 차례 변이가 일어났다. 섬이동 모티프가 섬형성 모티프로 변형되어 있는 것이다.

이처럼 「뽕지섬」에서 확인되는 섬이동 전설의 변이양상은 낙동강 하구에 위치한 부산의 지형적 특수성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뽕지섬」의 전승권역인 강서구 대저동은 낙동강 하구에 위치한 부산 지역 중에서도 최남단의 퇴적지에 위치해 있다. 대저동이라는 동명 자체가 낙동강 하구의 퇴적 작용으로 형성된 큰 섬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뽕지섬」이 부산 지역이 아니라 낙동강 중·상류에 위치한 경북 지역에 전승되는 텍스트였다면 섬의 형성이 아니라 섬이 흘러들어와 정지한 섬이동 전설의 기본형으로 내려티브가 짜여졌을 것이다. 그러나 부산 지역은 낙동강 중·상류를 타고 내려온 토사가 축적되는 지점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섬이동 모티프가 섬형성 모티프로 변형되어 있는 것이다.

5. 경남 지역과의 광역문화성

양산시·김해시 등 부산 인근의 경상남도 시군을 아우르는 광역문화성이다. 부산은 원래 작은 포구로, 부산포는 역사적으로 동래에 소속된 지역으로 존재해 왔다. 그러던 것이 부산이 남동해안 해외 무역의 구심점으로 성장하면서 오히려 동래를 소단위 행정구역으로 포함하는 거대 지역으로 발전하게 된 것인데, 인근의 양산시과 김해시 역시 이러한 부산을 중심으로 한 광역문화권의 일부를 구성하는 지역으로 관계를 맺고 있다. 부산시·양산시·김해시는 인접 소단위 행정구역의 성장과 함께 상호 일부로 포함되기를 거듭하는 관계로 존재해 왔다.

원래 강서구를 제외한 부산 광역시의 대부분 지역은 옛날 조선시대에는 동래부(東萊府)였고, 부산(釜山)이란 지명은 동래부 안의 태

백산맥에서 내려온 산자락 지역, 즉 현재의 부산진구 일대를 가리키는 지명이었다. 동래부 안에 부산이 속해 있었던 것이나, 1910년 동래부가 부산부로 개칭되고 1914년 행정개편으로 현재의 부산 동구, 서구, 중구, 영도구 일대를 부산부로 하고 부산부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동래 군(東萊郡)으로 변경되었다. 이후 동래 군은 지속적으로 행정구역을 부산부에 내주었고, 그에 반해 부산부는 꾸준히 행정구역을 넓혀갔다. 그러나 1973년 동래 군이 최종적으로 양산군(梁山郡)에 병합되어 행정구역으로서의 동래 군은 사라지게 되었다. 부산은 항구도시로서 꾸준히 성장하여 해방 이후 부산시(釜山市)로 승격되고, 동구·서구·동래구가 설치되어 동래는 구(區)로서 다시 행정구역으로 부활하였다. 이후 1963년 부산이 직할시로 승격되어 부산직할시 동래구로 개편되어 32년간 내려져 오다가 맨 먼저 남구 일부와 해운대구를 분리시키고, 1988년 동래구 북쪽을 새로 금정구(金井區)로 분리해서 내주고, 1995년 부산이 광역시로 승격됨과 동시에 동래구의 연산동·거제동 일대를 새로이 연제구(延提區)로 신설·분리하여 현재의 작은 동래구가 된 것이다.²⁴⁾

한편, 김해시와 인접한 현 부산시 강서구는 역사변천에 따라 금관군, 김해소경, 김해부, 금주군, 금주현, 김해도호부, 김해군 등으로 행정구역 명칭이 바뀌어 왔으며, 1978년 부산직할시 북구에 편입되어 현재의 부산시 소단위 행정구역의 하나인 강서구를 형성하게 되었다.²⁵⁾

이러한 부산시·양산시·김해시의 상호 관계 속에서 부산시는 제2의 도시이자 대표적인 광역시로서 도시적·산업적 발전이 양산시·김해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월등히 앞선 곳이다. 양산시와 김해시는 도농복합체의 도시로 아직까지 대부분의 지역이 농촌성과 전원성을

24) 이상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병운 「부산 행정구역 지명의 변천사」, 『한국민족문화』 29,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7, 329~378쪽을 참조하기 바람.

25) 이에 대해서는 부산 강서구청 홈페이지 www.bsgangseo.go.kr를 참조하기 바람.

간직하고 있으며, 경제적인 자립도에서도 부산경제에 대한 종속성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최근에 부산시와 인접한 경남 양산시·김해시는 부산과 통근·통학·구매·인구 증가 등으로 동일한 생활·경제권을 형성하고 있는 관계로 행정적인 통합이 추진되고 있기도 하다.

양산·김해를 포함한 부산의 광역문화성은 강서구 대저동에 위치한 빨지섬에 대한 「빨지섬」 전설에서 확인 된다. 빨지섬을 둘러싼 섬세다툼, 즉 도세(島稅) 다툼 모티프는 부산시·양산시·김해시 사이에 이루어진 소단위 행정구역 주고 받기의 역사·지리적인 맥락과 결합되어 있다. 대저동은 조선시대에는 원래 조선시대에는 양산군에 속해 있다가 1906년부터 김해군에 편입되었고, 다시 1978년에 부산시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1978년에 부산시 관할로 변경될 때까지 양산군과 김해군, 부산시 이 세 지역의 경계에 위치한 지리적인 특수성 때문에 행정관할 다툼의 대상이 되어왔다. 현 대저동의 이러한 지역사를 통해서 볼 때, 「빨지섬」의 텍스트 형성 시기는 대저동이 부산시 관할 행정구역으로 최종 변경되기 이전에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빨지섬」에서 확인되는 도세(島稅) 다툼 모티프는 영남 지역을 관통하여 흐르는 낙동강의 최종 기착지가 되는 부산 지역의 지리적·지형적 특수성을 역사적인 배경으로 하여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V. 나오는 말

본 연구는 부산 지역에 전승되는 광포전설의 존재양상을 살펴보고, 여기서 나타난 부산의 지역적 특수성을 추출하고자 하였다. 타 지역에 전승되는 광포전설의 존재양상과의 차별성을 통해 부산 지역만의 로컬리티를 규명하고자 한 것이다.

현재 부산 지역에는 아기장수 전설, 산이동 전설, 장자못 전설, 오누이 힘내기 전설의 전승이 확인된다. 먼저, 아기장수 전설은 기본형은 거의 전승되지 않고 생존형의 분포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부산 지역 아기장수는 청년기, 심지어 노년기까지 살아있는 특징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부산 지역에서 장자못 전설은 연못이나 호수와 같은 전형적인 자연지물을 증거물로 한 기본형은 단 한편도 확인되지 않으며, 대신 바위나 섬과 같은 거대 자연지물을 풍수지혈의 금기물로 한 풍수파혈 변이형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산이동 전설 역시 거대한 산이 행정구역 상의 경계를 넘어 이동해 왔다는 기본형이 확인되지 않는 대신 섬의 이동을 다룬 섬이동의 변이형만이 발견된다. 마지막으로 오누이 힘내기 전설 역시 여성 거인신과 남성 거인신의 대결과 여신의 패배라는 기본형은 단 한 편도 전승되지 않으면, 남성 장사 대 장사의 힘내기로 변형된 형태만이 확인된다.

이러한 부산 광포전설의 지역적 변이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부산 로컬리티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는 해안 도서지역적 여성성이다. 부산은 해양도서 지역의 간고한 생활여건 속에서 전통적으로 여성의 생활력이 강인하게 발현된 지역이다. 여성신 관념이 현재까지도 곳곳에서 당제제의를 통해 이어지고 있는 지역으로, 이러한 지역적 특수성이 여신의 결정적인 패배를 형상화 한 오누이 힘내기 전설의 형성에 저해 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두 번째는 민중의식이다. 부산은 한국사의 위기 때마다 국란을 수호하고 정치사의 맥락을 바꾼 결정적인 역할을 민중운동을 통해 수행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이러한 민중적 힘에 대한 자부심과 자신감이 민중영웅인 아기장수를 죽이지 않고 생존 시킴으로써 미래의 희망을 열어두는 변이형의 분화를 초래한 요

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는 해양방어기지로서의 특수성이다. 부산은 한국사에서 전통적으로 한반도 남동해안의 해안방어를 위한 최전선으로 존재해 왔다. 국란의 위기 속에서 부산의 이러한 위상은 더욱 부각되어 왔는 바, 아기장수 전설에서 죽은 아기장수를 마을 당제의 당신으로 좌정시키는 지역민의 의식은 이러한 국가수호의식과도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네 번째는 지리적 특수성이다. 부산 지역 광포전설의 다양한 변이형 속에는 해안·해양의 지리적 특수성, 동고서저의 지형적 특수성, 낙동강 하구에 위치한 지형적 특수성 등이 다채롭게 반영되어 있다.

다섯 번째는 인근 경남 지역과의 광역문화성이다. 부산시는 삼한 시대부터 인근에 위치한 경상남도 양산시, 김해시 등과 소단위 행정구역을 주고 받으면서 성장해 왔으며, 심지어 전자가 후자에 복속되거나 그 반대의 역사를 반복해 왔다. 현재는 부산이 경제적·정치적·문화적으로 이들 두 지역권을 아우르는 코스모폴리스로 성장해 있으며, 교통인프라의 발전으로 부산을 중심으로 한 세 도시의 광역문화권은 행정적인 통합이 추진될 정도로 더욱 공고해 지고 있다. 부산의 섬이동 전설과 그 섬세 다름 모티프는 이러한 부산의 광역문화성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참고문헌】

- 강대민, 2008, 『근대 부산의 민족운동』경인학국학연구총서.
- 강진옥, 1993, 「'마고할미' 설화에 나타난 여성신 관념」 『한국민속학』 25, 민속학회.

- 김월덕, 2007, 「호남지역 여성주재형 마을곳의 상징성과 축제성~ 정읍시 북면 오류리 마을곳을 중심으로」 『한국민속학』 46, 한국민속학회.
- 박종섭, 1991, 「하성」 『거창의 전설』 문창사,
-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1996, 『부산지명총람』 제2권, 동래구 명륜동, 213~222쪽.
- _____, 1999, 『부산지명총람』 제5권, 강서구 대저동, 89~182쪽.
- 부산직할시사편찬위원회, 1991, 「설화」 『부산시사』 제4권. 1350~1390쪽
- 소인호, 2000, 「서해안지역 설화의 특성 연구」 『口碑文學研究』 제10집.
- 최래옥, 1961, 『한국 구비전설의 연구』 일조각. 239쪽
- 부산광역시 기장군지리지 홈페이지 <http://simjeon.kr/xe/5451>
- 부산문화지리지 홈페이지, <http://www.busan.com/2009/wnj/pop11.html>
-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http://www.busan.go.kr>
- 부산광역시 영도구 홈페이지 <http://youngdo.cjb.net>

투고일	심사일	심사완료
2010.10.24	2010.11.30	2010.12.15

【국문초록】

본 연구는 부산 지역에 전승되는 광포전설의 존재양상을 살펴보고, 여기서 나타난 부산의 지역적 특수성을 추출하고자 하였다.

현재 부산 지역에는 아기장수 전설, 산이동 전설, 장자뭇 전설,

오누이 힘내기 전설의 전승이 확인된다. 이러한 부산 광포전설의 전승양상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부산 로컬리티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는 해안도서지역적 여성성이다. 부산은 해양 도서 지역의 간고한 생활여건 속에서 전통적으로 여성의 생활력이 강인하게 발현된 지역이다. 여성신 관념이 현재까지도 곳곳에서 당제제의를 통해 이어지고 있는 지역으로, 이러한 지역적 특수성이 여신의 결정적인 패배를 형상화 한 오누이 힘내기 전설의 형성에 저해 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두 번째는 민중적 힘에 대한 자신감과 자부심이다. 부산은 한국사의 위기 때마다 국란을 수호하고 정치사의 맥락을 바꾼 결정적인 역할을 민중운동을 통해 수행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이러한 민중적 힘에 대한 자부심과 자신감이 민중영웅인 아기장수를 죽이지 않고 생존시킴으로써 미래의 희망을 열어두는 변이형의 분화를 초래한 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는 해양방어기지로써의 특수성이다. 부산은 한국사에서 전통적으로 한반도 남동해안의 해안방어를 위한 최전선으로 존재해 왔다. 국란의 위기 속에서 부산의 이러한 위상은 더욱 부각되어 왔는 바, 아기장수 전설에서 죽은 아기장수를 마을 당제의 당신으로 좌정시키는 지역민의 의식은 이러한 국가수호의식과도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네 번째는 해양·동고서저의 지리적 특수성이다. 부산 지역 광포전설의 다양한 변이형 속에는 해안·해양의 지리적 특수성, 동고서저의 지형적 특수성, 낙동강 하구에 위치한 지형적 특수성 등이 다채롭게 반영되어 있다.

다섯 번째는 인근 경남 지역과의 광역문화성이다. 부산시는 삼한 시대부터 인근에 위치한 경상남도 양산시, 김해시 등과 소단위 행정구역을 주고 받으면서 성장해 왔으며, 심지어 전자가 후자에 복속되거나 그 반대의 역사를 반복해 왔다. 현재는 부산이 경제적·정

치적·문화적으로 이들 두 지역권을 아우르는 코스모폴리스로 성장해 있으며, 교통인프라의 발전으로 부산을 중심으로 한 세 도시의 광역문화권은 행정적인 통합이 추진될 정도로 더욱 공고해 지고 있다. 부산의 섬이동 전설과 그 섬세 다툼 모티프는 이러한 부산의 광역문화성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핵심주제어 : 부산, 로컬리티, 광포전설, 해안도서지역적 여성성, 민중적 힘에 대한 자부심, 경남과의 광역문 화성, 해안·동고서저의 지형성

【Abstract】

Pusan Gwangpo(廣布) legend and locality

Kwon do kyung / Daejeong Uni. the Faculty of Liberal Arts

This paper attempted to look into existence of Gwangpo(廣布) legend in Pusan and extract Pusan locality appearing in that.

In the present Pusan region, is found transmission of baby general legend(아기장수 전설), mountain moving legend(산이동 전설), millionaire's pond legend(장자못 전설), legend about a trial of strength between brother and sister(오누이 힘내기 전설).

These aspects of Pusan Gwangpo(廣布) legend seems to related to four Pusan locality.

The first is the characteristic femininity of Coastal Villages in

the Islands.

The second is the pride and confidence in the power of the people.

The third is the distinct characteristics of the marin defensive base.

The fourth is the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of Coastal and easternhigh~westernlow topography.

The fifth is the Metropolitan Cultural Orientation with neighboring Gyeongsangnam(慶尙南道)

Key words : Pusan , locality, Gwangpo legend, characteristic feminity of Coastal Villages in the Islands, pride and confidence in the power of the people, distinct characteristics of the marin defensive base,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of Coastal and easternhigh~westernlow topography, Metropolitan Cultural Orientation with neighboring Gyeongsangnam.